

길거리 제설함 ‘관리 부실’...폭설에 무용지물

대설특보에 광주 제설함 살펴보니

뒹개 활짝 개방·쓰레기 무단 투기
제설 도구 없고 모래주머니만 가득
시민들 “어디까지 몰라 이용 어려워”
市, “인력 부족...예보 때 정기 점검”



7일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제설함에는 공사용 장비가 포대에 가득 들어있다.

오는 9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빙판길 사고를 막기 위해 곳곳에 설치된 제설함 관리가 부실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제설함은 뒹개가 열려있고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채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7일 광주 동구의 한 상습 결빙 구간 인근에 설치된 제설함에는 제설제인 모래주머니가 가득 들어있었다. 다만 일부 모래주머니는 뜯어진 채 방치돼 있었고 과자 포장지 등의 쓰레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모습이었다.

다른 제설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광주 남구 봉선동에 마련된 제설함을 살펴보니 내부에는 제설제와 비슷한 포대에 공사용 장비가 가득 들어있었다. 제설제를 퍼낼 삽 등의 제설 도구는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제설제를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은 제설함을 열었다가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며 다시 뒹개를 닫고 돌아가기도 했다.

남구에 거주한다는 60대 최모씨는 “눈

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제설제를 뿌리려고 왔더니 관리도 엉망이고 도구도 없어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용에 불편한 위치에 설치된 제설함도 보였다. 광주 남구 봉선동에 설치된 또 다른 제설함은 인도가 아닌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 중간에 놓여 있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 선정으로 안전 사고 유발이 우려됐다.

제설함의 위치가 공유되지 않아 이용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확인 결과 광주 지역 5개 지자체 중 광산구만 유일하게 제설함 위치 자료가 등록돼 있었다.

김정윤(28)씨는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제설함을 본 적은 많지만 집 주변에 제설함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몰랐다”며 “오늘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 제설함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꼭 필요할 때만 눈에 안 보여서 난감했다. 설치만 하고 끝내지 말고 시민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7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상습 결빙 구간 인근에 설치된 제설함 내부에는 모래주머니가 뜯어진 채 방치돼 있고, 과자 포장지 등의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

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에는 467개(동구 34개·서구 61개·남구 108개·북구 71개·광산구 149개·제2순환(1·3구간) 12개, 제2순환(4구간) 3개, 종건 29개)의 제설함이 설치돼 있다.

제설함 관리는 각 지자체 등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주거나 방법 등은 의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눈 예보가 있을

때 광주시에서 공문을 보내 한 번씩 정기 점검에 나서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세부 내역이나 현황 관리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조사 현황표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다”며 “원래는 담당자들이 제설함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흠을 채워놓거나 필요한 제설도구를 마련해줘야 하지만, 각 자치구마다 제설함이 수십

개가 넘는데 담당 인력은 한정되다 보니 매년 제설함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눈 예보가 있을 때 시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대설특보 발효된 광주·전남서 안전사고 잇따라

순천·완도서 온열기구 화재 눈길 낙상·교통사고 이어져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광주·전남에서 온열기구 화재와 눈길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7일 광주 남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4분께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주택에서 정차된 디젤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내부가 전소되고, 인근 주택의 차양막이 소실되는 등 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발화 직후 차량 소유주 A씨는 “출근 전 차량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고, 대기하던 중 발화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역에서는 온열기구 화재가 연달

아 발생했다.

순천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1시32분께 순천 와룡동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의해 45분여만에 불이 진화됐으나 이 불로 컨테이너 1개동이 전소됐으며, 화목보일러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약 82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앞 가연물을 근접방치 하는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불씨가 옮겨붙어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11분께 완도 보길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났으나, 소방당국에 의해 33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보일러실이 불타고 집기류가 소실되는 등 소방추산 약 138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기름보일러의 과열로 인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눈이 내리면서 낙상사고 신고도 이어졌

다. 이날 광주에서는 3건, 전남에서는 1건 등 총 4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영광에서 차량 두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순읍에서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성아·윤준명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곡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록!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록!
바로 바로 확인까지 록!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 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지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